

第一回 國會速記錄 第二十八號 國會事務處

禮紀四二八一年七月十二日(月) 上午十時

國會第二十八次會議節次

- 一 開 議
- 二 第二十七次會議錄通過
- 三 報告事項
- 四 討論事項
- 五 憲法案第三讀會

討論案件

憲法案(第三讀會)

政府組織法 上程(開議件)

(上午十時開議)

○事務總長(全奎弘) 開會하것을 니다 다 整頓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出席人員數는 百三十八名이 있습니다

○議長(李承晚) 지금 國會 第二十八次會議開會합니다 지금 第二十七次會議錄 朗讀합니다

(記錄員 國會第二十七次會議錄朗讀)

○議長(李承晚) 會議錄에 對해서 무슨 異議있으면 말씀하시요 異議없으면 朗讀합니다

지금 報告事項 있으면 報告하시요

○事務總長(全奎弘) 事務處에서 暫間 報告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在日本 朝鮮物產會社에서 祝電이 왔습니다 內容은 다음과 같습니다

「國會의 成功을 祝福합니다이다 우리는 早速한 政府樹立을 바라나이다 在日本 朝鮮物產會社」

또하나 報告하 드릴것은 서울刑務所 拘置監에 있는 金敏株外八人 民族陣營 代表 되는 본인이 英文의 演說를 보였습니다 全文은 序文에서 國會의 發足을 祝賀하고 議員여러분의 健康과 激勸의 말이 있는後에 要旨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願컨대 이 民族의 所願인 中央政府樹立을 早速히 組織完成함을 伏願하며 惡生一同은 비록 軍政의 過誤를 犯하여 拘置된 불이오나 國家百年 大計에 있어서 萬分之一이나마 微力을 다하지 못함을 遺憾으로 여기며 獨立宣言의 鐘聲이 울리는날 先聖諸位와 兄弟姉妹여러분과 雙手 祝賀하며 萬歲聲의 愷氣衝天 하는날을 禱首苦待합니다이다」

이것이 要旨입니다 또하나 報告의 말씀을 드릴것은 本國會議員 鄭 濤議員께서 議長앞으로 俸給及 物資配給 受取謝絶의 要請이 왔습니다

禮紀四二八一年七月六日

鄭 濤

議長 責下

○李恒發議員 今番「버마」經濟會議에 出席한 商務部長 吳模朱氏의 報告에 依한 內容을 報告합니다 첫째로 日本에 있는 六十萬同胞가 아직 歸國하지 못한것은 그 40萬이 生活에 있어서 朝鮮사람과 다른것 또 生活에 아모 基礎가 없거나 또 하나는 財產所有에 있어서 그 財產을 擲入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問題는 差別的 待遇를 받고 있어서 그러하니 速히 獨立政府를 樹立해서 이러한 差別的 待遇等을 廢止해달라는 것이올시다

○議長(李承晚) 日本에 있는 同胞가 約六十萬입니다 그사이에말이 暹迫을 당하고 있는 것은 財產所有權問題에문이 올시다 日本사람들이 朝鮮사람들을 배척고 財產權을 몇가지로 해서 같은 策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사람들은 그觀點에 依해서 財產所有權이 決定되기前에는 우리가 아모리 暹迫을 당하지마도 暹迫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서 하로바야 되야 할것은 政府를 樹立해가지고 日本에

本議員은 우리 獨立政府를 樹立하기까지 俸給及 配給品 受取를 謝絶하오니 許諾해주시기를 바랍니다

事務處에서는 以上 報告를 마칩니다

○議長(李承晚) 드루는 報告있거든 報告하시요

○李恒發議員 今番「버마」經濟會議에 出席한 商務部長 吳模朱氏의 報告에 依한 內容을 報告합니다 첫째로 日本에 있는 六十萬同胞가 아직 歸國하지 못한것은 그 40萬이 生活에 있어서 朝鮮사람과 다른것 또 生活에 아모 基礎가 없거나 또 하나는 財產所有에 있어서 그 財產을 擲入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問題는 差別的 待遇를 받고 있어서 그러하니 速히 獨立政府를 樹立해서 이러한 差別的 待遇等을 廢止해달라는 것이올시다

는 우리同胞들과 中國에 있는 同胞들을 事情을 速히 判斷하여 될것입니다

○陳憲植議員 亦是 日本에서 日前에 發生地産에 依하여 우리同胞가 많은 被害를 蒙았다는 報告를 받은 報告를 받는다

井縣地區에 있어서 우리同胞 死傷이 八十名家屋損失이 三百七十八戶 입니다

細히 報告하면 驛井 高山 石川地區에 있어서 死亡한 분이 二十名 全獲家屋이 二百

餘 燒失家屋이 八棟 半獲家屋이 七十棟 입니다

○張洪發議員 亦이 問題를 報告해 드립니다

地方 特別히 저는 金甯이 金甯에 金甯事情에 對해서 報告하고자 합니다

地方에 對한 風水害의 被害가 大端히 甚하라고 그렇습니다

干拓地 特別히 海邊을 따아서 掘場을 만들었다든지 鹽田을 만들었다든지 干拓地의

被害가 大端히 甚해서 全甯 南部 務安郡 咸平郡 海南郡 珍島郡 一帶에는 大混亂을

呈하고 있습니다

타나지 않았을지라도 現在 水害를 입은 町數가 一萬二千町步 人員 約 四十名에 達한다고 그렇니다

의 國會가 行政機關이 아닌以上 아직 우리는 여기에 發動하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衷心으로 慰問한다면 지 이마음 措置을 爲하여 鄰

里의 慰問이 있는지 무엇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 報告하는 바이오니 나중 事件은 우리 政府가 組織된 다음에 處理 할것이요

子先 우리國會에서 鄭重한 慰問이라도 있어야 하게 報告합니다

○議長(李承晚) 그후가 지에 對해서 事務廳에 事務處에 付託하고 地方의 水害 同胞들에게 慰問의 金이라도 보내고 助하는 일이면 提出할것을 付託하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報告있거를 報告하시요 그러면 報告가 없으니 지 討論事項으로 붙여 갑니다

討論은 지난번에 議決하고 있는 憲法 起草問題에 對해서 第三讀會를 오늘 決定하

려고 하는 것입니다 子先 우리는 이 三讀會의 文句를 修正할 條件이 있다면 校正해서 드리고 나아가고 여기 校正본이 있으면 外 이

것을 大綱로 가지의 原文을 다만 校正할 것 입니다

입니다 校正본이 있으면 따라서 오늘은 여기 本이 다 讀아 마을 한 뜻으로 그렇은 討論에 不必要한 것은 討論하지 않고 必要한 일 이라고 先後를 比較해서 本일이 아니면 停止 하게 하고 大體로 通過하도록 注意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 규起 委員長 徐相日議員 報告합니다

1 (憲法案 第三讀會) 1

○徐相日議員 遞條해서 讀겠습니다 仔細히 보아 주시 기 바랍니다

(徐相日憲法起草委員長憲法遞條朗讀)

「前 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 民은 己未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制度를 樹立하며 政治 經濟 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 高度로 發揮케 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을 完遂케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意하고 우리들의 正當 自由로써 選舉권 代表로 構成된 國會에서 禮紀四二八年 月 日 憲法을 制定한다

(「중을 나타」 하는이 있음)

「大韓民國憲法」

「第一章 總綱」

○議長(李承晚) 여기 本이 疑議한 點이 계시 말씀해 주십시오

(「異議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 겠습니다

「第一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第二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徐相日議員 「發한다」 하는 原文을 「나온다 라고 고쳤습니다

「第三條 大韓民國의 國民의 要件은 法律으로 定한다」

「第四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三附屬島嶼로 한다」

「第五條 大韓民國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自由 平等과 機會를 均等히 하고 保障하며 公共福 利의 向上을 爲하여 이를 保護하고 調整

하는 義務을 진다

○徐相日議員 「個人의自由」라는것을 「各人의自由」라고 고치고 「此을」하는것을「이을」이라고 고쳐줍니다

「第六條 大韓民國은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한다 國防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을 遂行한다 使命으로한다」

○尹致燾議員 第六條에 國防軍으로 하는것을 國軍으로 고치자고 動議합니다

○白寬泳議員 시방 動議는 動議안입니다

○尹致燾議員 動議를 文書로 提出한것이 있습니다 意味를 바꾸는것이 아니고 文書를 바꾸는 것입니다

○議長(李承晚) 國防軍이라는것을 暫間내놓고 國軍이라고하는 動議였는데 아마 國防軍이라는것은 別康議가 있을것 같습니다 과우간 再請이 있으면 動議가 成立되는 것입니다

○張勉議員 再請합니다

○白寬泳議員 第三讀會에서는 文字를 바꿀수 없습니다 文句만 修正하게 되었습니다

○議長(李承晚) 動議에 再請이 있어 國防軍이라는것을 내놓고 國軍이라는것에 再請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再討論을 받고 可否를 하자는 것입니다

○徐相日議員 尹致燾氏로부터 修正動議案이 있습니다

고친다는 理由가 있을것입니다 理由를 물어 야할 것입니다

○議長(李承晚) 理由를 말하십시오

○尹致燾議員 理由를 설명하겠습니다 專門述語에 있어서 國軍이라 할것같은데 全部 우리 의 軍事에對한 總稱입니다 그러므로 國防軍이라는 이름은 總司官의 總稱입니다 그러므로 國防軍 指揮할때 對外的 國內의으로 좁은것이 되고 國軍이라 할것같은데 自然 國防軍은 거기에 包含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名詞에對한 文字하나 고친다고 하는것은 特別한 理由가 없고 國防軍을 그만두고 國軍이라 하면 여러 가지 參考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意味에서 이것을 고치자고 提案합니다

○議長(李承晚) 여기에 대해서 다 알으셨 으니까 「國防軍」이라는것을 「國軍」이라고 고치자는 그 動議를 시도

(舉手表决) 在席議員 百六十一人 可가百二十五否가十二니까 이動議 可決해서 「國防軍」이라는것이 「國軍」이라고 作定되었습니다

○議長(李承晚) 「議長」하는이 있음

緊急한일도 條件이 없으면 여기마십시오

○鄭煥議員 「大韓民國은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한다 國軍은 國土防衛에 神聖한 義務을 遂行한다 使命으로한다」 하는것을 이 文字體制로써 國軍은 國土防衛의 權限을 第二項으로써 하는것이 좋겠지 같습니다

○議長(李承晚) 이問題에 대해서 再討論이 있으면 으레도 進行해나갈것입니다 「第七條 批准公布된 國際條約과 一般의 으로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同一

한 効力을 가진다 外國人의 法的地位

는 國際法 國際條約과 國際慣習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趙憲泳議員 여기 國際法과 國際慣習의 範圍內에서 이國際慣習이라는게 對해서 專門委員이 여기에對해서 말씀이 있었는대 여기 이것을 決定한것인데 分明히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國際慣習이라는것은 말은 漠然한데 將來 外國人이 우리國內에서 財產所有權이라든지 여러가지 外人의 所有財產權이라 는 이問題가 우리나라가 建國한뒤에 그것이 錯雜한問題가 일어날 念慮가 많은데 여기에對해서 이條項을 여기에 앞으로 大端의困難한問題에 達着한 餘地가 있지않은가 하는것을 우리가 保障하지 아니하면 안될것입니다 이點에對해서 以前에 鄭煥議員과 暫間에 대한일이 있었습니까 하는 여기에對해서 우리가 다시 좀 考慮해서 이 「國際慣習」이라는것이 漠然한文字나 앞으로 困難이 없지않을가 하는것을 專門委員과 또는 國際法專門家의 시는분으로부터 意見을 暫間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專門委員(俞鍾午) 國際慣習은 敍사는것은 좋은말 생각합니다 國際法이라는것이 國際慣習으로 國際法을 形成하기에 이은것은 當然히 包含되므로 國際法 國際成文을 國際慣習法을 包含하고 보면 國際慣習이라는것을 좀 따르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尹致燾議員 자꾸 時間을 보내게해서 大端히 未安합니다 나는 第一 처음 이 二項을 집어넣는것을 個人으로 反對했습니다 그러니까 第七條에 있어서 이法에 國際法上에

依해서 우리가 우러나라에 外國사람이라도
우러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같이 保障한다 그
뜻을 나타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二項에서 다
시 그것을 넣는 것은 體制上 實際에 있어서
또한 우러나라 運輸하는 데 있어서 어떤關係
上으로서 支障이 있을을 나타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第二項을 挿入한에對해서 말하지아
니합니다가는 二項의 것은 그만두드라도 國際
慣習에對해서 우러나라 國內慣習이 矛盾되지
아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一項에 있는 것
그것을 다시 二項에 넣을 必要가 없습니까
다른 것은 말아나하고 「國際慣習」이 라는 것을
絕對排絶합니다 이예자를 대자는 것을 勸諭합
니다

○趙憲泳議員 再請합니다
○曹泳柱議員 三請합니다

○柳振甲議員 第七條二項에 「外國人の 法的地位」
라는 國際法 國際慣習 範圍內에서 保障된
다」 형을 나타내 이것은 第一項과 같은 性質보
이것을 다시 第二項에 넣는 것은 必要하다
고 생각합니다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同一한
効力を 가진다면오면 그만큼을 나타내다 그러
므로 저는 第二項全部를 削除하기로 改議합
니다

○議長(李承晩) 지금 勸諭와 改議가 있음
니다 勸諭는 國際慣習을 대자는 것이요 改議
는 二項 全部를 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改
議와 勸諭는 먼저 改議 먼저 表決에 부치겠
습니까

○崔國錄議員 以前에 이것이 追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專門委員이 必要하므로
因해서 追加한 것인데 專門委員의 意見を 한

번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專門委員(兪錫午) 外國人の 法的地位를
憲法에 넣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을 넣는 理由는 以前 말한 대로인 것이 있었습니
다 라는 外國憲法中에 假令 外國과 같은 데에
서 어떠한지 나라 사람이 모여서 사는 데니까
即 自己나라 市民權을 가진 사람에게 適用되
는 것과 또 自己나라國籍을 갖지 않은 사람도
모도 認定하는 어떤 것을 區別해서 어떤 데에
는 市民에게 어떤權利를 말하고 어떤 데에는
人民에게 사람에게 認定하는 權利를 保障하
고 있습니다 또 外國과 다른 나라에서는 大概
어떻게 取扱하고 있는고 하니 以前에 말한 대로
外國人の 地位는 通商條約에서 假令 自己나
라國民과 같은 것으로서 取扱한다 고하는 사람
自己나라 사람과 마찬가지로 取扱하고 自己나
라보다 더 偉大하다고 하면 過去の 일입니다
마는 이런條件이 있는 데에는 自己나라 國民
보다 더 좋은地位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러면 이러한 通商條約이 없는 다른 나라 外國
人에對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國籍이 없는 사람
에對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사항들에 관
그 自己나라 國民에對해서 權利保障中에서
그것이 다만 國民에게對해서 局限된 것이 아
니라 모든 사람에서 사람이면 다 不可不認定
해야겠다는 것을 區別해가지고 假令 獨逸
法을 말하면 獨逸人의 權利義務란 것이 있음
니다 그러나 獨逸人이라는 義務는 獨逸國籍
을 가진 사람만을 意味한다는지 또는 獨逸國
籍을 가진 사람의 사람이므로 通商條約이나 이
런 것이 없다면 그러나 國民이라는 말은 우리
國籍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意味로 解釋하기

○趙憲泳議員 再請합니다
○曹泳柱議員 三請합니다

○柳振甲議員 第七條二項에 「外國人の 法的地位」
라는 國際法 國際慣習 範圍內에서 保障된
다」 형을 나타내 이것은 第一項과 같은 性質보
이것을 다시 第二項에 넣는 것은 必要하다
고 생각합니다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同一한
効力を 가진다면오면 그만큼을 나타내다 그러
므로 저는 第二項全部를 削除하기로 改議합
니다

○議長(李承晩) 지금 勸諭와 改議가 있음
니다 勸諭는 國際慣習을 대자는 것이요 改議
는 二項 全部를 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改
議와 勸諭는 먼저 改議 먼저 表決에 부치겠
습니까

○崔國錄議員 以前에 이것이 追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專門委員이 必要하므로
因해서 追加한 것인데 專門委員의 意見を 한

에 관하여 外國人을 差別待遇하는 憲法이 아니라
는 것을 表示하기 爲해서 第七條一項에서 說
明한 意味에서 保障된다면 特別 第二項은 法
的地位에 關해서 그 말은 外國人을 優待하는 것
모아나고 그렇다고 해서 排斥하는 것으로 아니고
國際法과 國際條約의 範圍內에서 外國人을
待接한다 그러한 趣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專門委員의 立場에서 생각해볼 때에 이條項이
있고 없고간에 何如던 外國人에對해서 우리
나라는 差別待遇 하지 않는다 그것을 特別
第二項과 區別해서 強調하는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趙憲泳議員 再請합니다
○曹泳柱議員 三請합니다

○趙憲泳議員 再請합니다
○曹泳柱議員 三請합니다

○柳振甲議員 第七條二項에 「外國人の 法的地位」
라는 國際法 國際慣習 範圍內에서 保障된
다」 형을 나타내 이것은 第一項과 같은 性質보
이것을 다시 第二項에 넣는 것은 必要하다
고 생각합니다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同一한
効力を 가진다면오면 그만큼을 나타내다 그러
므로 저는 第二項全部를 削除하기로 改議합
니다

○議長(李承晩) 이것은 羅容均議員의 說明
이 옳습니다 지금 國防軍에對해서 說明과
같이 外國人에對한 것이 하나 있어야 할 것으로
아니까 그러나 그것은 지금 미의 第三國會
에서 性質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대
서는 안 될 것이고 여기에對해서 說明을 할 것
이 없으면 表決에 부칩니다 그러면 可否를

는비 이것은 全部에게고 하는것이 改議인데 지금 改議의 可否를 먼저 물을것이니까. ○鄭島萊議員 議長 그것은 改議性質이 안됨 니다

○議長(李承晚) 改議는 成案이 안됨다는말 이 있으면서 지금 改議는 第三國會에서는 改議가 못되니까 이것은 前例한다고 하는말 이니까 이動議 하신분들은 그렇게하시오 改議는 불지않고 動議를들었는때 動議의本意는 「國際慣習」이라고하는 文字를 써지고하는것이 動議입니다 그러면 表決에 부침니다

(舉手表決)

在席議員 百六十一人 可에百二十六 否에三 그러므로 그動議가 可決되어서 原文으로 말아갈때에 이「國際慣習」이라고하는 文字는 國제 慣習이올시다 또 다음朗讀하십시오 ○徐相日議員 그러면「外國人의 法的地位는 國際法 國際條約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이렇게 됩니다

「第二章 國民의 權利義務」

「第八條 모든國民은 法律앞에 平等이며 性別信仰 또는 社會的 身分에依하여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아니다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一切認定되지아나라며 如何한 形態로이든 創設하지못한다 勳章 其他榮典의 授與는 오로지 그반은 者의 榮譽에 限한것이여 如何한 特權은 創設되지 아니한다」

「第九條 모든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法律에 依하지아니하고는 逮捕拘禁 搜索審問 處罰과 強制勞役을 받지아니한다」

다 逮捕拘禁搜索에는 法官의 令狀이 있어야한다 但 犯罪의 現行犯의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念慮가 있을때에는 搜查機關은 法律의定하는바에 依하여 事後에 令狀의 交付를 請求할수있다 누구는 지 逮捕拘禁을 받은때에는 即時 辯護人의 助力를받을 權利와 相當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權利가 保障된다」 「第十條 모든國民은 法律에依하지아니하고는 居住와 移轉의自由를 制限받지아니하며 住居의 侵入 또는 搜索을 받지아니한다」 「第十一條 모든國民은 法律에依하지아니하고는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아니한다」 「第十二條 모든國民은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國教는 存在하지 아니하며 宗敎는 政治로부터 分離된다」 「第十三條 모든國民은 法律에 依하지아니하고는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를 制限받지아니한다」 「第十四條 모든國民은 學術의 自由를 가진다 著作者 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으로써 保障된다」 「第十五條 財產權은 保障된다 그內容과 限界는 法律으로써 定한다 財產權의 行使는 公共必要에依하여 國民의 財產權을 收用使用 또는 制限할은 法律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相當한 補償을 支拂함으로써 行한다」

○洪燾權議員 우리말로 神聖한 憲法을 創設함에 있어서는 絕對的으로 우리國民의 固有한 文字를 使用하는것이 妥當하다고 생각 이됩니다 여기에 第十五條에「使用 또는 制限할은 法律의 定하는바에依하여 相當한 補償을 支拂함으로써 行한다」였는데 이 支拂 이라고하는 文句는 侵入물에 限해서만 쓰는 文句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文字를 쓰는것보담 贈與「給與」가 가장 좋은字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와關聯해서 다른條에도 어떠한 限이라고하는 限字가 많이쓰여있는게 그것은 全部「하지못함」으로 고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限字가 日本말보하면 「限(가키리)」 즉그런「가키리」「이러이러 하다」이렇게 通用的으로 使用하고있는데 이限字가 이 우리韓國文句로서는 使用되지아니 하는 文字입니다 第十五條에 動議한때에 對해서는 宗敎먼저 지나침말씀입니다 마는 요다 음에 그限字하든지 그런部門이 많이나올것으로 생각이되고 하니까 미리 이런것을 우리 文字로서 修正하는것이 가장 좋은것이라고 생각함으로 이것을 修正하자는것을 動議하는 바입니다

○曹國敏議員 再請합니다

○金長烈議員 三請합니다

○議長(李承晚) 여기에 動議 再請 三請까지 있으면서 여기에對해서 可否를정했습니다 이 있으면서 여기에對해서 可否를정했습니다

在席議員 百六十四人 可에百六票 否에十票이 가 때문에 可決된것이올시다 「第十六條 모든國民은 均等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가있다 적어도 初等教育은 義務的이며 無償으로한다 모든 教育機關은

國家의 監督을 받으며 教育制度는 法律
 보세 定한다」
 「第十七條 근로國民은 勤勞의 權利와
 義務을 가진다 勤勞條件의 基準은 法律
 보세 定한다 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特
 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十八條 勤勞者의 團體 團體交涉과
 團體行動의 自由는 法律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權利의 目的으로하는 私企業에
 있어서는 勤勞者는 法律의 定하는바에 依
 하여 利益의 分配에 均等한 權利가 있
 다」

○曹奉岩議員 十八條에 對해서 말씀하셨을니
 다 이 十八條는 十七條에 있는것을 十八條
 보 옮길때에 여러가지로 討論이 있었을니
 다 議案을해서 十八條로 옮기자고하는 議
 員께서 여기에 對한 說明을했었고 거기에對
 해서 反對되는 意思도 많이 말씀하셨고 나
 중이 決定될때에는 議長께서 分明히 說明하
 기를 十七條에있는 그대로 十八條에 옮긴다
 그러한것을 그때 손을 들어서 決定한 것이
 였시다 요날 이記錄에 보면 議案動議하고
 說明한議員의 말씀도 그文句가 그때로 들어
 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錯誤일것 같습니
 다 萬一 이것이 錯誤라면 議長께서 說明하
 신점이 있으니까 速記錄을 參考해서서 善處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張勉議員 지금 말씀하신 議員께서는 한
 部門을 記憶하고 나머지는 記憶을하지못한것
 같습니다 그외에 여러가지 文句 修正까지
 相當한 討論이 있었는데 거기에對해서 修正
 하는에對한 原動議者로부터의 그修正을 接受

한 일이 있었는데 表決에 부치지 置前에
 여기 書記보논본이 主文을 分明히 明瞭을해
 서 擧手한 여러분께서 充分히 그主文의 具
 었인지 아시고 擧手하신점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에서 무슨 어떠한 問題가 提起될 理由
 가 何等 없다고 생각합니까
 ○申性均議員 그대에 十七條 但項 十八條二
 項을 그때로 옮긴다 議長先生님은 宣布하
 셧고 憲法起草委員會에서는 修正動議에 나
 그主文대로 說明하시고해서 그것은 大膽히
 明確히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本議員의 記憶
 하는바에 依해서는 議長이 宣布하신것이 分
 明히 第十七條二行에 그때로 옮긴다고 이렇
 게 말씀들은 記憶이 있습니다 그런故로 아
 마 曹奉岩議員께서 速記錄을 한번 調査하라
 고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 그速記錄을
 다시參考해서 그것을한번 朗讀하면 모든사실
 의 疑心이 自然을말정임으로 이것을 眞正
 論議할것없이 速記錄을 한번 읽기를 要請하
 는 바입니다

○徐相日議員 第十七條但項은 議案動議가 의
 어서 第十八條二項에 옮겨올때에 議長先生께
 서 말씀하신것은 그精神을 但項에 第十七條
 但項에 있는 精神 그대로 十八條二項에 옮
 기자는 말씀하신것이 아니라 그때로 十八條
 에 옮겨라는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들이 이
 會議討論하는것은 議案動議原則에 들어가 그
 原則에 依支해서 우리가 事務를 進行해가지
 고 그렇게해서 이 議案順序대로 決定된 文句
 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混同하시기를 바
 람니다
 ○李鐵株議員 本議員의 記憶에는 이 議案動議

할때에 議長先生님이 宣布한 그精神 그精神
 만을 남겨두고 지금 憲法起草委員長인 徐相
 日議員이 말씀하신것이 違背하다고 생각합니
 다 왜냐하면 議案動議의 第十七條但項은
 抹殺되고 議案動議로 들어가므로서 第十七條
 但項은 當然 廢止된것을 宣布하고 다음에
 修正動議文을 記錄하시는분이 朗讀하고 우리
 가 擧手表決해서 表決이된을 압니다 議長先
 생이 宣布하신 精神만을 우리가 알지마는
 그때에 議長先生이 말씀하신後에 徐相日起草
 委員長께서 再三 이차리에 나와서 第十七條
 의 그但項은 議案動議된바에 따라서 第十七
 條但項 原文의 削除動議에 따라서 削除된다
 고 말씀하시고 그런안 아니라 記錄한 原文
 을 朗讀한後에 우리가 表決해서 決定된것이
 였시다 그런故로 더 論議할것이 없다고 本
 議員은 強調합니다

○議長(李承晚) 여기에 動議가 되었으니까
 簡單히 우리가 表決에 부쳐서 임을합시다
 ○李周術議員 한번 決定된 法律條文이 다시
 고쳐질때에는 慎重을 期하기 爲해서 修正動
 議를 提出하는바에 여러가지手續이 있을
 니다 萬一 여기서 그러면 手續을 밟지않고
 그냥 法律을강다가 修正하자는 動議가 있다
 고 할것같은데 改正이라든지 修正하자고하는
 動議가 있다그런것 같으면 반드시 시방 나
 와서 말씀하시는데 本議員께서 나와서 反
 對하신을 압니다 議長이 修正案에 말씀
 하셨다 假令 議長先生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한 表決의 方
 法에 지나지 못하고 그精神은 어떠한지 우리
 가 會議을보 생각하는데 老練하신 議長

先生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議員들의 本精神이 어디 있는가 疑心하고 싶을
 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말씀하신 그 것을 가
 지고 時間浪費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그대로
 앞으로 進行하시기 바랍니다.
 ○議長(李承晚) 그렇습니다. 進行하기는
 합니다.

「第十九條 老齡 疾病 其他 勤勞能力의
 喪失로 因하여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는
 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第二十條 婚姻은 男女同權을 基本으로
 하며 家族의 純潔과 健康은 國家의 特
 別한 保護를 받는다」

○張 勉議員 이것은 우리가 採擇한 것과 意
 味가 달으니다. 採擇된 것은 「婚姻은 男女同權
 을 基本으로 하며 婚姻의 純潔과 家族의 健康
 은 國家의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婚姻의 純潔과 家族의 健康
 이라고 이렇게 부가지를 區別해서 논점을
 말이에요. 여기에 가서는 家族의 純潔과 健康
 이라 하는 것은 全然 意味를 沒却하고 關聯
 性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와같이 院의 決議
 를 갖다가 院에 묻지 않고 담대히 고친다는
 것은 큰 過誤라고 생각합니다.

(「이問題는 遺記錄에 分明히 있을 것이
 니다. 遺記錄대로 보고 고쳐가지고 나가
 기를 바랍니다」 하는이 있음)
 ○崔泰植議員 제가 記憶하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婚姻은 男女同權을 基本으로 하고
 婚姻의 純潔性과 家族의 健康은 國家의 特
 別한 保護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記憶이 납니다.
 ○議長(李承晚) 거기에 對해서 原文朗讀하
 시요.

○專門委員(俞鎮午) 이 二十條는 지금 張
 勉議員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婚姻은
 男女同權을 基本으로 하며 婚姻의 純潔과 家
 族의 健康은 國家의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提案하신 樞密部
 議員하고 議論해서 第三回會에서 文句修正을
 할 수가 있었니까 그 점을 잘 文句를 만들어
 서 說明하셨다. 이렇게 되어서 修正案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修正을 하자고 하는 그理由
 는 「婚姻은 男女同權을 基本으로 하며」
 그것은 假令 特權制度는 不可하다는 그러한
 內容을 包含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婚姻의 純潔과」 그렇니까 婚姻의 純潔이
 라고 그랬으면 女子나 男子나 다 明白해야
 한다는 그意味를 強調하고 婚姻後에 夫婦
 라는지 그것을 包含하지 않은 그러한 印象
 을 준다. 그리고 「家族의 純潔」이라고 하면
 婚姻도 들어가고 婚姻 以後의 夫婦關係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므로해서 正當한 婚姻의
 意味이고 이點에 있어서는 우리 國家도 家族
 制度를 保護한다. 婚姻과 家族 이 것을 明白히
 나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미 婚姻을
 家族으로 고쳐서 提案한 것입니다.

○議長(李承晚) 아마 表決하면 좋겠는데
 말씀할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張 勉議員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樞密部議員 個人으로써 專門委員과
 合議해서 할 性質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까지든지 法律으로서의 國會에서 表決된

以上에는 다시 表決의 過程을 밝기前에는
 한두사람의 意見으로써 이것을 變更하는 것은
 到底히 容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婚姻의
 純潔」이라는 것은 決斷로 婚姻後에도 이
 純潔 善美制度를 分明히 包含할 줄 알고 提議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解釋이 달으니다.
 그러니까 到底히 이대로 容納할 수가 없다
 생각해서 우리의 原文의 表決 그대로 나가
 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議長(李承晚) 이것을 가지고 자꾸 議論
 만 하시면 안됩니다. 이條文을 原文대로 하
 자는 이도 있고 고쳐서 다시 하자는 이도 있
 고 그러니 이것을 可否를 물어서 作定하기
 바랍니다.

○金鳳沅議員 이게 專門委員이 말씀하신 것을
 家族의 純潔이라고 하는 것이 亦是 「婚姻의
 純潔」을 包含한다. 다시 말하면 善美制度를
 否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專門委員
 의 意見에 反對意見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
 으로 우리가 普通 우리가 생각할 때에 家族
 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家族戶主의 長男이라
 는지 불제아를요 있습니다. 戶主된 사람의 決
 斷을 가지고 마음대로하며 家族純潔이라 할
 것 같으면 모릅니다. 아마 張 勉議員께서 말
 하신 바와같이 樞密部議員의 提案에 反對하
 는 것이니까 張 勉議員의 純潔 最初의 原案
 그대로 支持해야 할 것입니다. 大端히 字句가
 잘못될 點이 있으면 이것을 修正해야 할 것
 입니다.
 ○議長(李承晚) 이勸諭 고쳐자는 것이 고쳐
 자는게 可否 묻겠습니다.
 (「可否하십니까」 하는이 있음)

表決해서 作定하자는 것임니다

○李聖得議員 原文에 보임으면 됨니다

○議長(李承晚) 原文에 보임은요

「第二十條 婚姻은 男女間權을 基本으로 하며 婚姻의 純潔과 家族의 健康은 國家의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二十一條 國民은 國家 各機關에 對해서 文書로써 請願을 할權利가 있다 請願에 對하여 國家는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二十二條 國民은 法律의 定한 法官에 依하여 法律에 依한 裁判을 받을權利가 있다」

「第二十三條 國民은 法律에 依하여 犯罪을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動에 對하여 訴追를 받지 아니하며 또 同一한 犯罪에 對하여 두번 處罰되지 아니한다」

「第二十四條 刑事 被告人은 相當한 理由가 없는限 遲滯없이 公開裁判을 받을權利가 있다 刑事 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國家에 對하여 補償을 請求할수 있다」

○洪燧權議員 아까 勸諭했습니다가는 이限은 없이하기보하여 고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第二十五條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選舉할 權利가 있다」

○張炳晚議員 한정「限」字는 그것은 日本사법이 쓰는 限字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가 그限字는 그대보시오 限字를 생각합니

다

「第二十六條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擔任할 權利가 있다」

「第二十七條 公務員은 主權을 가진 國民의 受任者이며 آنچه든지 國民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國民은 不法行爲을 한 公務員의 豁免을 請願할 權利가 있다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으로 因하여 損害를 받은者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對하여 賠償을 請求할수 있다 但 公務員 自身の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아니다」

「第二十八條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써 輕視되지는 아니한다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制限하는 法律의 制定은 秩序維持와 公共福利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 限한다」

「第二十九條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三十條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國土防衛의 義務를 진다」

「第三章 國會」

「第三十一條 立法權은 國會가 行한다」

「第三十二條 國會는 普通、直接、平等 秘密選舉에 依하여 公選된 議員으로서 組織한다 國會議員의 選舉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三十三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第三十四條 國會의 定期會는 每年一回

十二月二十日에 集會한다 當該日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翌日에 集會한다」

「第三十五條 臨時緊急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 또는 國會의 議長은 四分一以上의 要求에 依하여 議長은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國會閉會中에 大統領 또는 副統領의 選舉를 行할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國會는 遲滯없이 當然히 集會한다」

○總憲法議員 第三十五條二項에 依하여 國務總理의 任命에 關한 修正이 第六十九條에 붙어 있는데 原文을 改定한 것은 條項이 없었는데 그것을 넣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가 國會閉會中에 大統領 副統領을 選舉하지는 國務總理를 承認할 權利 必要가 있으면 當然히 大統領의 要求로한다든지 이같은 明文에 넣는 것이 좋을지 안넣는 것이 좋을지 定하는 것이 좋을지 합니다가 國務總理를 任命해서 承認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當然히 召集해야 할 줄아는 데 이原文을 改定한 것은 이條文에 안붙어 있는데 第六十九條에 國務委員을 國會에서 承認했으니가 그條文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가 副統領의 選舉와 國務總理任命에 對한 承認을 行할지 承認할지 넣어야 하겠습니다가 副統領의 選舉와 國務總理任命에 對한 承認을 「限」字는 없고 「承認」을 써넣으면 좋겠습니다가 國會閉會中에 大統領 또는 副統領의 選舉와 國務總理任命에 對한 承認을 行할지 事件이 發生한 때에는 國會는 遲滯없이 當然히 集會한다」

○議長(李承晚) 자기對해서 討論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柳憲甲議員 文字는 열리지 아니하나 憲要
 門委員이 如何한 說明이 있어도 首肯할 수
 없었으나 지금이 第三國會에서는 憲法
 條項이라든가 修正할 수 없다 하므로 改進黨
 언정입니다 또는 憲法委員의 報告한대로 修正
 한다면 解釋에 있어 最大한 差異가 생길 것이
 니 이三國會에서 修正할 수 없다는 것을 指摘
 해 놓는다

○議長(李承晚) 또 무는...
 ○申性均議員 지금勸諭는 柳憲甲議員이 指摘
 하신바와같이 三國會에 있어서 勸諭는 成立 못
 되는 것과 또 하나는 第三十五條 一項은 臨時
 緊急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이 國會
 를 召集하게 됩니다 大統領 副統領을 選舉할
 事由가 있을 때에는 自然集會될 것인데 特別히
 언다는 것은 大統領이 없는데 緊急한 事務가
 發生할 때 召集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任命權을 가지고 國會
 의承認을 받는바라하여 大統領이 여기에當然히
 附隨的인 手續을 해야 할 것입니다 第三十五條
 第一項을 살피서 알마는지 活用할 수 있는 것이
 모로 이것을 法文에 거기에다가 넣 것을 旨
 明하였읍니다 그런으로 第一은 勸諭가 成立
 안되고 둘째는 必要가 없다요해서 勸諭에
 反對하는 것입니다

○議長(李承晚) 異議가 있다면 말합하시요
 ○金相魯議員 元來 第六十九條 法文에 있어
 서「國務總理는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會의承認
 을 받아야 한다」이條文을 挿入할 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은 大統領이 專制하는 것
 을 防止하는 것이다 이것이 原因의 한가지이

고 또 볼때로는 大統領과 副統領의 사이를
 圓滿히 하기 위해서 國會의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第三十五號에
 있어서 大統領 副統領 選舉權한 事由가 있
 다면 이렇게 된다면 第六十九條 第一項이
 반드시 削除한 것까지도 여기에 當然히 挿入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議長(李承晚) 그러면 여기에對해서 特別
 한 異議가 없다면 지금 그것을 作定할
 것입니다

○鄭勳榮議員 이것은 趙憲泳議員이 말합하
 나 이제 起草委員會에서 말합하였읍니다 이것을
 第一 挿入한다면 大法院長도 또 挿入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
 會에 認准을 받는 것을 挿入해야 됩니다 이
 것을 國務總理는 國會의承認을 받아서 國
 會에서 任命한다면 大法院長을 任命하는데도
 國會의承認을 받아야 됩니다

○議長(李承晚) 그러면 副議長십시요
 「第三十六條 國會는 議長一人 副議長二
 人을 選舉한다」

「第三十七條 國會는 憲法 또는 國會法
 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한 그 在籍議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議決을 행한다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
 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決
 定權을 가진다」

「第三十八條 國會의會議는 公開한다
 但國會의 議決에 의하여 秘密으로 할 수
 있다」

「第三十九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
 을 提出할 수 있다」

「第四十條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로 移送되어 十五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但 異議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
 은 異議를 附하여 國會로 還付하고 國
 會는 再議에 附한다 再議의 結果 國會의
 在籍議員 三分之二以上의 出席과 出席議
 員 三分之二以上의 贊成으로 前同한
 議決을 한 때에는 이라고 하는 「한」을
 「할」이라고 하였읍니다」할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法律案이
 政府로 移送된後 十五日以內에 公布
 는 還付되지 아니하는 때도 그 法律案은 法
 律로서 確定된다 法律案이 政府로 移送된
 後 十五日以內에 公布 또는 還付되지 아
 니하는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
 된다 大統領은 本條에 의하여 確定된 法律
 을 遲滯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法律은 特
 別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日로부터 二十日
 을 經過함으로써 効力을 發生한다」

「第四十一條 國會는 豫算案을 審議決定
 한다」

「第四十二條 國會는 國際組織에 關한條約
 相互援助에 關한條約 締和條約 通商條約
 國家 또는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
 우는條約 立法事項에 關한 條約의 批准과
 宣戰布告에 對하여 同意할 수 있다」

○李源弘議員 第四十二條의 「同意할 수 있다」가
 「同意權을 가진다」고 그렇게 修正하기는 勸
 諭합니다 그理由는 勸諭하게 하는 것은 個人의
 權利입니다 第一 同意한다면 반드시 同意
 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義務的 意味를
 發現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同意權을 갖는

다그 할것이 當然하라고 생각합니까

○朴海權議員 三請함니다

○李瑞求議員 三請함니다

○議長(李承晚) 可容를것을나타

(學手決)

이정 한자 平자고지는것은 本일이 아닌것은

그날부턴 容정하오 (笑聲)

在席議員 百七十一人 可 八十三이고 否 十

八 입니까 그러면 이정은 未決이니까 다시

그때는... (笑聲)

○李源弘議員 未決인 兩時에는 平인 容기보

려어있을나

○議長(李承晚) 原案에對한것을 한번 容

을나타 原案그때는 平자는거입니까

(學手決)

在席議員 百七十一人 可 五十四 否 七十

이니까 未決입니까 그러면 그날부턴...

○徐相日議員 勸議를 한번 더 容어보십시오

○議長(李承晚) 그러면 勸議를 한번 더

容을나타 아가 勸議의뜻은 아 어미분이 容

아니까 說明한합니까 아가는 投票를 容 못

할어오 (笑聲)

(學手決)

在席議員 百七十一人 可 百二十 否 二十五

입니까 可決되었을나타 否 입지는 그다음

繼續하십시오

「第四十三條 國會는 國政을 監察하기爲

하여 必要한 書類를 提出하게하여 證人의

出頭과 證言 또는 意見의陳述를 要求할

수있나」

○議客均議員 그이하한 問題인것 容을나타

處費같은것은 容을 私的으로 起事委員에게

발한일이 있을나타마는 이「出頭」라는말은

日本에서가 남니까 日文何를 바르는데야되

것을나타 이말을「出頭」이라고 고치는것이

어떨까오 그렇게 勸議함니다

○尹致盛議員 再請함니다

○鄭島榮議員 三請함니다

○議長(李承晚) 「出頭」라는말이 容을

제가 남입니다 (笑聲)

(學手決)

在席議員 百七十一人 可 百三十三 否는 沒

오니까 아가 마흔분은 案權을한 模樣인데

이다음엔 案權하게오

「第四十四條 國務總理 國務委員과 政府

委員은 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수 있으며 國會의 要求가

있을때는 出席을 容하여야한다」

「第四十五條 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

查하고 議事에對한 規則을 制定하고 議

員의 懲罰을 決定할수있나 議員을 除名

함에는 在籍議員 三分之二以上의 贊成이

있어야한다」

「第四十六條 大統領 副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 審計院長 法官 其他 法律이

定하는 公務員이 그職務進行에 關하여

憲法 또는 法律에 違背한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決議할수있나 國會의彈劾

訴追의 決議는 議員 五十八人以上의 連署

가 있어야하며 그決議는 在席議員 三分

之二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以

上의 贊成이 있어야한다」

여 法律으로 彈劾裁判을 設置한다 彈劾裁

判所는 副統領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하고

大法官五人과 國會議員五人이 審判官이 된

다 但大統領과 副統領은 審判官에는

大法院長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한다 彈劾判

決은 審判官 三分之二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彈劾判決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고친다 但此에依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

의 責任이 免除되는것은 아니나」

「第四十八條 國會議員은 同時에 地方議

會의 議員을 兼할수없다」

○崔寅教議員 第四十八條에「同時에」라는 말

을 왜가바랍니다」勸議함니다

○李裕善議員 再請함니다

○申光均議員 三請함니다

○議長(李承晚) 四十八條에「同時에」라는

것에 勸議再請 있을나타 可容를容니다

(學手決)

在席議員 百六十三人 可 百三十二 否 一

可決된 것입니까

「第四十九條 國會議員은 履行犯을除한

外에는 會期中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는 拘禁되지아니하며 會期終에 還歸

는 拘禁되었을때에는 國會의 要求가 있

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第五十條 國會議員은 國會內에서 發表

한 意見과 表決에對하여 外部에對하여

責任을 지지아니한다」

「第四章 政府」

「第一節 大統領」

「第五十一條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長이

「第五十二條 大統領이 事故로因하여 職務을 遂行할수 없을때에는 副統領이 그 權限을 代行하고 大統領 副統領 모두 事故로因하여 그 職務을 遂行할수 없을때에는 國務總理가 그 權限을 代行한다」

○金東準議員 第五十二條에 있어서「副統領이 그 權限을 代行하고」그리고 그 밑에「國務總理가 그 權限을 代行한다」고 하였는데 國務總理가 代行하는것은 代行的이나 義務的으로 行하는것입니다 大統領의 權限을 代行하는것은 代行的이라한지 모르지만 나중 끝으로써에가서 國務總理가 代行한다는것은 代行的이 아닙니다

「第五十三條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會에서 無記名投票으로써 各各 選舉한다」

前項의 選舉는 在籍議員 三分之二以上の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以上の 贊成投票으로써 當選을 決定한다 但三分之二以上の 得票者가 없는데에는 二次投票을한다 二次投票에도 三分之二以上の 得票者가 없는데에는 最高得票者 二人에對하여 決選投票을 行하여 多數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國會議員을 兼하지 못한다」

○洪燦種議員 第五十三條第一項에 「三分之二以上の贊成投票으로써」라고 하였는데 贊成投票이라고하면 候補者를 내세운 境遇에는 거기에 該當한지 몰라도 候補者를 내세우고는 無記名投票을해서 得票하고하면 좋겠읍니다 ○議長(李承晚) 그날 朗讀하시요 「第五十四條 大統領은 就任에際하여 國

會에서 左의 宜善을行한다 「나는 國憲을 遵守하며 國民의 福利를 增進하며 國家를 保衛하여 大統領의 職務을 誠實히 遂行할것을 國民에게 嚴肅히 宣誓한다」

「第五十五條 大統領과 副統領의 任期는 四年으로한다 但再選에依하여 一次 再任할수 있다」 副統領은 大統領在任中 在任한다」 「第五十六條 大統領 副統領의 任期가 滿了된때에는 늦어도 그 任期가 滿了된기 三十日前에 그 後任者를 選舉한다 大統領 또는 副統領이 關位된때에는 即時 그 後任者를 選舉한다」

「第五十七條 內憂 外患 天災 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 經濟上의 危機에際하여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緊急한 措置를 採必要가 있을때에는 大統領은 國會의 集會를 기미될餘裕가 없는 境遇에限하여 法律의 効力을 가진 命令을發하거나 또는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할수 있다」

前項의 命令 또는 處分은 遲滯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야한다 萬一 國會의 承認을 얻지못할때에는 그때부터 効力을 喪失하며 大統領은 遲滯없이 此를 公布하여야한다」 「第五十八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一定한 範圍를 定하여 委任을 받은事項과 法律을 實施하기爲하여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命令을 發할수 있다」 「第五十九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하고

批准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行하고 外交節을 信任接受한다」 「第六十條 大統領은 重要한 國務에關하여 國會에 出席하여 發言하거나 또는 書翰으로 意見を 表示한다」 「第六十一條 大統領은 國防軍을 統帥한다 國防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으로써 定한다」

○徐相日議員 國防軍의「防」字는 變을나타 ○崔圭柱議員 지금은 第三議會인데 第二議會는 지냈읍니다마는 第六十一條의二項만은 削除를 아니할수 없읍니다「國防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으로써 定한다」하였는데 國防軍의 組織과 編成은 機密일것입니다 秘密로 되어야 할것인데 法律로 定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削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徐相日議員 參考로 들어올려다 「第六十二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六十三條 大統領은 法律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赦免 減刑과 復權을 命한다 一般 赦免을 免함에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六十四條 大統領은 法律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한다」 「第六十五條 大統領은 勳章 其他 榮譽를 授與한다」 「第六十六條 大統領의 國務에關한 行爲는 文書로하여야하며 또는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 國務委員의 副署가 있어야한다 軍事에 關한것도 또한 같다」 「第六十七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

批准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行하고 外交節을 信任接受한다」 「第六十條 大統領은 重要한 國務에關하여 國會에 出席하여 發言하거나 또는 書翰으로 意見を 表示한다」 「第六十一條 大統領은 國防軍을 統帥한다 國防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으로써 定한다」

의 罪를 犯한 때 以外에는 在職中 刑事
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李鎮洙議員 아가 第五十一條에 對한 것을
말씀드리며요 하였읍니다마는 아주 急하게
나가기 때문에 第一節을 끝낸 후에 말씀드리며
고 하였읍니다 만 것이 아니라 第五十一條에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班이며 外國에 對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이 外國에 對하여 國家를
代表한다는 이 글자는 必要없을 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國內的으로요 國家를 代表하고
한다면 그대로 이 「外國에 對하여」 이 것을 削
除해야 합니다 그러면 「外國에 對하여」 이
다섯 자를 削除하기를 勸諭합니다

(「勸諭한 죄요」 하는 이 있음)
(「再請합니다」 三請합니다」 하는 이 있음)
勸諭의 理由에 對한 것을 說明하겠읍니다 大
統領은 外國에 對해서만 國家를 代表하는 것
이 아니라 大統領은 全的으로 國家를 代表
하는데 外國이나 國內나 國家를 代表하는 것
이 當然한 原則일 것입니다 그 밖에도 外國에
對해서만 代表한다는 것을 反對하는 同時에
勸諭합니다

○徐相日議員 그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입으시오」 하는 이 多數 있음)
「第二節 國務院」
「第六十八條 國務院은 大統領과 國務總
理 其他의 國務委員으로 組織되는 合意
體로서 大統領의 權限에 屬한 重要國策을
議決한다」
「第六十九條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任命
하고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國會議
員 總選舉後 新國會가 開會되었을 때에는

國務總理 任命에 對한 承認을 다시 얻어
야 한다
國務委員은 大統領의 任命한다
國務委員의 總數는 國務總理를 合하여
八人以上 十五人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第七十條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輔佐하여 國務會議
의 副議長이 된다」
「第七十一條 國務會議의 議決은 過半數
으로 行한다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以外에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七十二條 左의 事項은 國務會議의 議
決을 經하여야 한다
一、 國政의 基本的 計劃과 政策
二、 條約案、宣戰、講和 其他 重要한 對外政
에 關한 事項
三、 憲法改正案、法律案、大統領令案
四、 豫算案、決算案、財政上의 緊急處分案、
豫備費支出에 關한 事項
五、 臨時國會의 集會要求에 關한 事項
六、 戒嚴案、濫殺案
七、 軍事에 關한 重要事項
八、 榮譽授與、赦免、減刑、復權에 關한 事項
九、 行政各部間의 連絡事項과 權限의 劃定
十、 政府에 提出 또는 廻付된 請願의 審査
十一、 大法官、檢察總長、審計院長、國立大
學總長、大使、公使、軍司令官、軍參謀
長、其他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

員과 重要國營企業의 管理者의 任免
에 關한 事項
十二、 行政各部의 重要한 政策의 樹立과 運
用에 關한 事項
十三、 其他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
出하는 事項」

○徐相日議員 第七十一條에 「國務會議의 議決
은 過半數으로 行한다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以外에」 이였는데 이것은 「表決
權을 가지며」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요 前에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尹致暎議員 十一項에 있어서 軍司令官이라고
하는 것이 統裁하는 關係로 軍에 있어서 軍司
令官이라는 것은 數十名이 있는 것은 다 아는 것
입니다 師團의 行動한 데는 저 旅團의 行動하
게 되는데 있어서 少佐부러 軍司令官이 될 수
있으니 저 到底이 指揮命令上 行動에 있어서
能率을 發揮할 수 없으니 저 여기에 對해서 國
會라든지 大統領으로써 任命하고 指示하는데
있어서 「國軍總司令官」으로 되고 이 「總」字
하나를 넣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서 軍參謀
長이라고 하는 것은 軍參謀로 師團부러 旅團
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對해서
「國軍總參謀長」이라고 그 「總」字를 挿入하
는 것을 勸諭합니다

○張勉議員 再請합니다
○鄭均植議員 三請합니다
○議長(李承晚) 다 그렇게 하시면 表決에 부치
겠습니다
(學手表決)
在席議員 一百六十三人 可에 八十九 否에 八
可決입니다

國務總理 任命에 對한 承認을 다시 얻어
야 한다
國務委員은 大統領의 任命한다
國務委員의 總數는 國務總理를 合하여
八人以上 十五人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第七十條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輔佐하여 國務會議
의 副議長이 된다」
「第七十一條 國務會議의 議決은 過半數
으로 行한다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以外에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七十二條 左의 事項은 國務會議의 議
決을 經하여야 한다
一、 國政의 基本的 計劃과 政策
二、 條約案、宣戰、講和 其他 重要한 對外政
에 關한 事項
三、 憲法改正案、法律案、大統領令案
四、 豫算案、決算案、財政上의 緊急處分案、
豫備費支出에 關한 事項
五、 臨時國會의 集會要求에 關한 事項
六、 戒嚴案、濫殺案
七、 軍事에 關한 重要事項
八、 榮譽授與、赦免、減刑、復權에 關한 事項
九、 行政各部間의 連絡事項과 權限의 劃定
十、 政府에 提出 또는 廻付된 請願의 審査
十一、 大法官、檢察總長、審計院長、國立大
學總長、大使、公使、軍司令官、軍參謀
長、其他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

議長으로서 발할 것은 이條文의 다 넘어가는
中이니라 閉會하기 전에 이점을 다 通過
한 뒤에 點心잡우러가기로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이야기 많이 하신 副보.....

「第三節 行政各部」

「第七十三條 行政各部長은 國務委員中에
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의 命을承하여 行政各
部長을 統理監督하며 行政各部에 分擔되
지 아니한 行政事務를 擔任한다」

「第七十四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長
은 그擔任한 職務에關하여 職權 또는
特別한 委任에依하여 總理令 또는 部令
을 發할수있다」

「第七十五條 行政各部의 組織과 職務範圍
는 法律으로써定한다」

「第五十條 法院」

「第七十六條 司法權은 法官으로써 組織
된 法院이行한다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下級法院의 組織은
法律으로써定한다

法官의資格은 法律으로써定한다」

○徐相日議員 行政各部에 第七十三條와 第七
十四條에 「行政各部長은.....」 行政組織案에
行政各部長官이라고 하였으니 여기에 도 이
「官」하나를 넣는것이 좋을생각합니다 좋
읍니까

「(「좋읍니다」하는이多數있음)

「第七十七條 法官은憲法과 法律에依하여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七十八條 大法院長인 法官은 大統領
이 任命하고 國會의承認을 얻어야한다」

「第七十九條 法官의任期는 十年으로하되
法律의 定하는바에依하여 連任할수있다」
○柳聖甲議員 연(連)字가 이 연(連)字가
아닌것 같읍니다 第七十九條에 「法官의 任期
는 十年으로하되 法律의定하는바에 依하여
連任할수.....」 云云의 이 연(連)字
보다는 續任 延(延)字 가 가당니까
○徐相日議員 延(連)字는 續任과 구별된다
「第八十條 法官은彈劾 刑罰또는 懲戒處
分에 依하지아니하고는 罷免·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第八十一條 大法院은 法律의 定하는바
에依하여 命令·規則과 處分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最終적으로 審
査할 權限이있다
法律의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되는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依하여 裁判한다
憲法委員會는 副統領을 委員長으로하고
大法官 五入과 國會議員 五人의 委員으
로構成한다 憲法委員會에서 違憲決定을
할때에는 委員三分之二以上の 贊成이 있
어야한다
憲法委員會의 組織과 節次는 法律으로써定
한다」

「第八十二條 大法院은 法院의 內部規律
과 事務處理에 關한規則을 制定할수 있
다」

○徐相日議員 第八十二條를 이르게치도 相
關없어요
「(「相關없읍니다」하는이있음)

「第八十三條 裁判의對審과 判決은 公開
한다 但 安寧秩序를 妨害하거나 風俗을
善할念慮가 있는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써 公開을아니할수있다」

「第六十條 經濟」

「第八十四條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모
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要素를 充足
할수 있게하는 社會正義의 實現과 均衡있
는 國民經濟의 發展을 期함을 基本으로
삼는다
各人의 經濟上自由는 이 限界內에서 保障
된다」

「第八十五條 礦物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產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수있는
自然力은 國有로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一定한期間 그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하거
나 또는 特許를 取消한은 法律의 定하는바
에依하여 行한다」

「第八十六條 邊地는農民에게 分配하며
그分配의方法 所有의限度 所有權의內容과
限界는 法律으로써定한다」

「第八十七條 重要한 運輸·通信·金融
保險·電氣·水利·水道·가스및 公共性을
가지企業은 國營 또는 公營으로한다 公
共必要에依하여 私營을 特許하거나 또는
그特許를取消한은 法律의定하는바에 依하
여 行한다
對外貿易은 國家의 統制下에둔다」

「第八十八條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에依하여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또는 그經營을
統制·管理한은 法律의 定하는바에 依하
여 行한다」

「第八十九條 國家의 統制下에둔다」

「第九十條 國家의 統制下에둔다」

「第九十一條 國家의 統制下에둔다」

「第九十二條 國家의 統制下에둔다」

「第九十三條 國家의 統制下에둔다」

「第九十四條 國家의 統制下에둔다」

「第九十五條 國家의 統制下에둔다」

「第九十六條 國家의 統制下에둔다」

「第八十九條 第八十五條 乃至 第八十八條에 依하여 特許를取消하거나 權利를收用 使用하는 制限하는 때에는 第十五條第三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七章 財政」
「第九十條 稅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制定한다」

「第九十一條 政府는 國家의 總收入과 總支出을 會計年度마다 豫算으로 編成하여 每年 國會의 定期會開會初에 國會에 提出하여 그 議決을 하여야 한다
特別히 繼續支出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年限을 定하여 繼續貸로서 國會의 議決을 하여야 한다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는 政府가 提出한 支出豫算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또는 新貸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九十二條 國債을 募集하거나 豫算外에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함에는 國會의 議決을 하여야 한다」
「第九十三條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充當하기爲한 豫備費는 이미 國會의 議決을 하여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하여야 한다」

「第九十四條 國會는 會計年度가 開始되 기까지에 豫算을 議決하여야 한다 不得已한 事由로 인하여 豫算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國會는 一箇月以內的 假豫算을 議決하고 그 期間內에 豫算을 議決하여야 한다」
「第九十五條 國家의 收入支出의 決算은 每年 審計院에서 檢査한다」

政府는 審計院의 檢査報告와 함께 決算을 次年度의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審計院의 組織과 權限은 法律로 制定한다」
「第八章 地方自治」
「第九十六條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團體의 自治에 關한 行政事務와 國家가 委任한 行政事務를 處理하며 財產을 管理한다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自治에 關한 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第九十七條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 制定한다
地方自治團體에는 各各 議會를 둔다
地方議會의 組織、權限과 議員의 選舉는 法律로 制定한다」
「第九章 憲法改正」
「第九十八條 憲法改正의 提議는 大統領 또는 國會의 在籍議員 三分之一以上の 贊成으로 せ한다 憲法改正의 提議는 大統領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前項의 公告期間은 三十日以上으로 한다
憲法改正의 議決은 國會에서 在籍議員 三分之二以上の 贊成으로 せ한다
憲法改正이 議決된 때에는 大統領은 即時 公布한다」

「第十章 附則」
「第九十九條 이 憲法은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의 議長이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法律의 制定이 없이는 實現될 수 없는 規定은 그 法律이 施行되는 때부터 施行된다」
「第一百條 現行法令은 이 憲法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限 効力を 가진다」

「第一百一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禮紀 四二七八年 八月十五日以前의 惡質의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
○徐相日議員 이 「四二七八年」을 「四千二百七十八年」으로 고치십시오
○李鍾根議員 百一條에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한다」로 고치십시오
○徐相日議員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法律上 옳지 「한다」하면 法律上 안 된다는 것을 언저會議에서도 말이 있었읍니다
○李鍾根議員 「할 수 있다」고 하면 해로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惡質의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特別法은 絕對로 制定해야 할 것이 아니라 一般國民이 이 特別法을 열어나가더라도 있는 지 아십니까 그러므로서 이 「制定할 수 있다」 것을 「制定한다」고 하기로 動議합니다
○金基諤議員 再請합니다
○柳鴻烈議員 三請합니다
○議長(李承晚) 再請없어요 再請없으면 그 때로 갑니다
○徐相日議員 「再請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徐相日議員 勸諭再請이 되지 않읍니다 먼저會議에서도 이 말이 있었는 때 이것은 法律上으로 法律的으로 不遜及의 原則으로 規定된 特別法입니다 그 런 까닭에 「할 수 있다」해도 하는 것이 예요 「한다」고 안 붙이 드라도 相關없어요 그렇게 法律上에 違反되는 것을 期於이 고칠 必要가 무엇이 있읍니까 할 수 있는 것을... 第二議會에 否決된問題예요 否決된 것을 다시 여기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精神을 차리고 장 생각해서 말을 해주세요 第二議會에서 否決되

었어요

(議長) 하는이多數있음)

(場內騷然)

○金明東議員 當然히 그것을 「할수있다」는 것을 고칠수가 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精神 차려라하는것은 그것은 到底이 말이안됩니다 그러니까 表決해주시지요

(場內騷然)

○議長(李承晚) 第二讀會에서 否決된것 問題삼지말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第百二條 이憲法을 制定한國會는 이憲法에依한 國會로써의 權限을行하며 그議員의任期는 國會開會日로부터 二年으로한다」

「第百三條 이憲法施行時에 在職하고있는 公務員은 이憲法에依하여 選舉 또는 任命된者가 그職務를 繼承할때까지 繼續하여 職務를行한다」

○徐相日議員 暫間한마디 드리겠습니다 第九十六條에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範圍內에서 團體의自治에關한...」 그것을 「그自治에關한...」即 「團體」라는것을입세고 「그」로 고쳤읍니다

○徐廷禧議員 오늘 우리國會議員은 참 慶事 스럽고도 기쁘朗讀을 다마칠읍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全部 第一條부터 第百三條까지 全部贊成하는 사람이냐 그러나 知識이未及해서 그랬는지 좀 多少文字에 조금고치고 싶은 것이 있어서 本議員으로서는 조금 그동안에 時間이 조금遲滯되었다는 그點에서 大端히 適當하게 지냈읍니다 그런데 오늘참으로 시

원스법제 第三讀會를 마치게되는이때에 이三讀會로 第百三條까지 朗讀을 한以上에는 이憲法은 비로서 通過하기를 勸諭하는 것이올시다

○金 結議員 再請합니다

○金永東議員 三請합니다

○尹錫龜議員 四請합니다

○李範敦議員 五請합니다

○議長(李承晚) 勸諭再請은 이全體百三條를 朗讀한것을 全體로 通過하자는 勸諭 再請三請이니까... ○尹在旭議員 勸諭側에서 이것을받는다면 여기三讀會하면서 字句修正으로서 大概열군데 있는것같은데 이字句修正과 이것을 完備하는 同時에 前文에 攢紀四二八一年 月 日이라고 했읍니다 勸諭側에 添付하고싶은것은 이것을 七月十二日도 날까지 規定하는것을 添付하는것을 받으시면 勸諭側에 添付합니다

○徐廷禧議員 接受합니다

○議長(李承晚) 여기對해서는 討論이 없으니까 이것을 慎重히 하기爲해서 여기서 呼名을할때니까 呼名을 부르거든 「可라」 「否라」 이렇게넘어가면 좋겠읍니다 異議없으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李鍾根議員 第百一條에 「制定할수있다」는 것을 制定한다」고 勸諭했읍니다 거기에 再請三請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違法입니다

○議長(李承晚) 尤前에 이것은 勸諭再請이 되어가지고 否決이되었는데 또 이렇게해서 問題를만들면 안되니까 勸諭再請안된다고 하렸읍니다 그러면 이全文을 그대로 通過하자

는것을 可케여기면 起立하시요 이것은 大韓民國憲法을 百三條를 朗讀한대로 普通通過하는 槪의입니다 (全員起立)

한분도 빠짐이 없으니까 全體가 通過된것이니까... (拍手)

○李晶來議員 우리는 歷史的으로 이大韓民國憲法을 우리의손으로 우리가制定해서 우리子孫萬代에 傳해주는榮光을 가졌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慶賀하는 意味로서 全體가 起立해가지고 萬歲三唱하는것을 勸諭합니다

○議長(李承晚) 議長이 說明하겠는데 여기에對해서는 三千萬民族이 지난四十年동안에 남의法律 밑에서 사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이때에 우리民族의代表로 自由選舉로서 우리가여기에 모여가지고 三千萬을 代表하는 民意를 받아가지고 이憲法을 우리의손으로 制定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서 이國法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또 다스릴을받게 이렇게 制定한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憲法の制定은 實로解放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努力하시오 意見서로 감지않은것도 다犧牲을 하시고서 오늘이成績이 있게한것은 여러분이 많이 努力해서 하신것으로 大端히 議長으로앞에서 感謝히 생각합니다 特別히 意圖가 같지 않은 것도다 犧牲을하시오 큰目的을爲해서 이반치한것을 大端히 여러분에게 感謝하고 致賀를올리는 바입니다 또따라서 特別히 起草委員들이 自律的으로 생각을해서 韓人들의 意思韓人들의 法律을이만치 만들었다고 外國사람들이 더욱이 美觀사람들이 充分하게 다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公布되는날은 우리가作定해가지고 公布하겠지
만 우리國會議안에서는 完全히 作定이 되어서
國法은 세운것이니까 公布하는날에 全國에
것이 다施行될것입니다 努力하신委員과 持히
起草委員長이 朗讀을장해서... (笑聲)
大端히 고맙습니다

(政府組織法上程에關한件)

○徐相日議員 報告해드립니다 政府組織法은
그동안 敍次로여서 要綱만은 討議의있었습니다
마는 成文으로 다完成하지못해서 오늘午後에
上程하지 못하게됩니다 오늘木曜日 上程할豫
定을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여주시고 또 政
府組織法起草委員들은 午後午時에 一齊히 第
一會議室로 集合해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李承晚) 오늘起草委員들에게 行政組
織法을만들어서 드리놓라고했는지 委員이답을
찾는지 作定이되지 못하였다고하니 좀기다릴
必要는 있겠지만 오는木曜日또한하고...
오늘午後에드리놓라고 議長은督促합니다 (拍
手) 아모리 圓滿하게 起草委員들이 만드려
놓았다하더라도 여기와서 또 討議을해야 圓
滿하게作定이 될때니까 圓滿히될때까지 기다
린다고 남쪽을돌지말고 만물은것이 있으면
여기다가 드리놓면 우리끼리 이야기할것이니
까 來日아침에 드리놓라고 請합니다(拍手)
國會全體가 同意하니까 아모말하시고 來日아
침에 드리놓시요
(議長과 徐相日議員 相讓)
來日모데 드리놓겠다고 하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됩니다) 하는이多數있음

○金明東議員 起草委員의말과 다른起草委員
의말이 좀틀립니다 다른起草委員의말이 大綱
決定되어서 남은것은 어찌까지 다된다고 起
草委員이 말습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흘이나
이날 그렇게 延延될理由가 어찌있는지 모르
겠습니다 議長께서도 累累히 말습하시기를
아모조북 하오연히 通過하고 政府組織法을
하오연히 通過해서 政府是組織해야겠다는것을
累累히 말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怠慢한것은 그責任이 어찌있는지 糾明하시기
바랍니다

○尹在旭議員 勿論 우리國會議員이 모르는것
도 大槪는 社會의輿論機關을通過해서 起草委員
들이云云하는 모은浪說을 다알고있습니다 勿
論 여러가지 苦衷도있고 困難한點도 있으리
라고 합니다 이것이 木曜日云云하는것은 假
令 지금 이것을 말습하는것은 誠意가적지않
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成文化하
지못했다는가 아직 未完成되었다는가하는 起
草委員의 말을 尊重해서 너무나 無理한 要
求를해도 그도실일이 없지않아 있으니까 水
曜日날아침에 일찍이 여기에 上程하기를 勸
諭합니다

○尹致暎議員 再請합니다
○李榮俊議員 三請합니다
○議長(李承晚) 이제 水曜日아침에 드리놓
라는 勸諭再請이니까
○李裕善議員 먼저 勸諭하신분의 말씀을 疑
訝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말씀은해놓고 水曜日
날에 上程시켜달라는것은 疑問입니다 그러모
로 勸諭에反對하고 改議가될것같으면 改議하

겠습니다 먼저말씀드린것은 다시 反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新聞紙上에 發表한 것이 거
나도 같은 起草委員中에서도 저번에 金曜
日날 거진 다 大體討論가 되어서 이것이
印刷가 되는대로 土曜日날 決定지어가지고
月曜日날은 넉넉히 上程된다고 分明히 들었
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오는木曜日날 上
程하겠다는것은 一般에게 疑訝心을주는同時에
우리亦是도 疑訝心을 가지지않을수 없습니까
그런故로 責任을分明히 糾明하면 모르거나
來日午前開會時까지 上程해주시기를 改議합니
다

○李謙濂議員 再請합니다
○李晶來議員 三請합니다
○議長(李承晚) 그러면 改議가 되었으니까
改議를정읍니다
○朴海克議員 여러분이 速히드리놓라고 말습
안하더라도 우리起草委員들은 每日繼續해서
머리부쓰고 한時間이라도 速히드리놓려고 합
니다 그러므로 아직못내놓는것은 內都의事務
가 完成하지 못한가답입니다 아직全體가 成
文化가 되지못하였읍니다 그러므로 成文化한
것을 法律로作定하는데 여러분이 머리를 搭
이쓰게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催促해서
不 완전한것을 가져오면 亦是 完全한 處理를
못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議長께서 말습하
시기를 木曜日날아침에 내놓라고 하시지만
完全하게 되지못합니다 催促하는것은 오히려
延延을 意味하는것입니다

○議長(李承晚)可否表決에 부지겠습니다
水曜日 午前에가서 드리놓라는것이 勸諭지요
改議는무엇입니까 來日 上程해 달라는것입니까

(「개」) 하는이 있음)
그러면改議를 물음지입니다 委員들은 무슨關係에 依支해서 來日못내는다고하니 하보구는 것이 좋을것같읍니다

○柳聖甲議員 水曜日로말씀하신분이나 來日내 놓라고 改議하신분이나 그誠意만은 感激할뿐이지 무엇이라고 말할수없읍니다 그러나 新開에發表 되었다고하지만 四處十部가 되었다는것 뿐이지 四處를 무엇이로한다 어떠한權限이 있다는것은 아직안定했으니까 그것을 定하는데 있어서는 來日도 어렵고 不眠不休해도 모래까지 내놓수 없기때문에 먼저起草 委員長이 말씀하신대로 諒解해주시면 大端히 좋겠읍니다

(「可否요」 하는이多數있음)
○議長(李承晚) 그러면改議를 表決에부칩니다

(舉手表決)
在席議員 百六十六人 可에三十二 否에九十九이니 否決된것입니다 그러면 勸議를물음것입니다 勸議는 水曜日아침에 드려놓라는것이 勸議입니다 그러면 可否를물읍니다

在席議員 百六十六 可에一百九 否에七이니 可決된것입니다
水曜日 來日모래아침에 起草委員들은 이組 織法案을 드려놓것입니다 이제는 散會할터인데 會議를 停會할때에 오날午後에 다시開會 하자든지 그렇지않으면 모래아침에 開會한다든지 勸議再請이 있어야할것입니다
○金永東議員 議長께서 直接宣布하시면 되는것입니다

○議長(李承晚) 그러면 다른것없으면 오날 아침에 애들 많이 왔으니까... 그러니 이것으로 오날午後는 散會를하고서 모래아침에 開會합니다 아모조부 時間에나와서 여기報告 해드일적에 人員數가 많아야 될것입니다 이 報告하려는것은 무엇인고하니 外國 손님들이 잘못하면 疑訝하게 생각할것이 무엇이냐 하면 外國사람들이 大韓民國이라고 한것에對해서 外國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생각하기를「고려」라고 했읍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이름에對해서「고려」라고 했읍니다 우리國號를 大韓民國으로한것은 새로國號를 고친것이 아니라 已未年에 倭놈들이「朝鮮」이라고 한것이 아니라 已未年에 倭놈들이「朝鮮」이라고 宣布 進멸머리가나서 우리는 大韓民國이라고 宣布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그 大韓民國의 大 繼承을 받기爲해서 그때로한것이 지 이번에 大韓民國이라고한것은 國號를고친것이 아니라 己未年의 그때로한것이니까「고려」라고 하는것을 고친것이 아니고 그때로한것이니까 國號의 이름은 고치지않었다는것을 新聞에서 外國 사람들이 國號를 고치지않은것이라고 諒解하도록 事務局에 指示해서 英文으로 公文을 만들어서 公布하도록 指示합니다 지금 다른 意見없으면...

○李鍾洙議員 우리 三千萬同胞가 期待하고 있던 憲法이 오날 通過되니 우리三千萬同胞는 누구할것없이 感激하겠읍니다마는 別議 員이 이座席에 參席하지못하고 또 以北同胞는 참으로 눈물을흘리면서 絶望을생각합니다 그러니 議長 先生에게 特別히 附託을말씀 받으시라 하고 이國會에 하로速히나와서

國會를爲해서 일해주시도록 議長先生님이 特히 要請하시기를 附託합니다
○議長(李承晚) 지금은 討論이 없을생각 하고 散會하려고하는데...
○李文源議員 散會하기전에 暫間 風聞에들은 것을 參考로 말씀드리려고합니다 今般政府組 織法 遲延에있어서 治安部를 獨立시키느냐 않느냐하는데 對해서 매우말성이 된다는 風說이 있는데 제가들은 限에는 獨立國家로서 治安 內務에서 分離시켜가지고 獨立시킨다는것은 大端히 矛盾이라는것이 지금輿論이 沸騰 된것을 參考로 提供합니다
(「必要없소」 하는이 있음)
○議長(李承晚) 오날우리가 責任을 다하였 으니 大端히 마음이기쁩니다 散會합니다
(下午零時三十五分散會)